

관광산업 관련정도와 관광개발 인식수준, 관광영향 지각, 그리고, 관광정책참여도의도의 영향관계

Relationship among Level of Performance of Residents to Tourism, Perception of Tourism Effects, and Intension of Citizen Participation

이계희, 지봉구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Gye-Hee Lee(ghlee@khu.ac.kr), Bong-Gu Jee(tourxpert@khu.ac.kr)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성과 관광개발 인식이 관광영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이 지역주민의 관광정책 참여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였다.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정도는 지역축제 영향지각 중에서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수준에 대한 지각정도는 지역축제 영향지각 각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영향력의 크기는 환경적 영향이 가장 크고, 관광정책 참여의도, 사회문화적 영향, 경제적 영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요인과 관광정책 참여의도 간의 관계는 사회문화적 요인만이 관광정책 참여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개발의 관광영향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의 영향 지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관광영향 | 관광산업 | 관광개발 | 정책참여 |

Abstract

This paper closel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how the local residents' involvement in a tourist industry and their perception of tourist development have an influence on tourism' and also 'how the understanding of a tourist effect has an influence on the local residents' participating intention in the tourist policy'. The local residents' involvement in the tourist industry was influenced by economical and socio-cultural factors among the influencing perceptions on local festivals, but, statistically, was not influenced by an environmental factor. The local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t development has influenced on each local festival, and for the rate of influence, the environmental factor was the highest, and in the next order, the residents'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ourist policy, the socio-cultural factor, and the economical factor followed.

In the rel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perception of tourist influence and their participating intention, only the factor of socio-culture had a plus(+) influence on the participating intention in the tourist policy. It is expected that this result will be different from the tourist influence of tourist development. Therefore, a study of the perception on the influence of tourist development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 keyword : | Tourist Influence | Tourism Industry | Tourism Development | Participation of Policy |

* "본 연구는 2010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임." (KHU-20100139)

접수번호 : #100714-005

접수일자 : 2010년 07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1년 01월 11일

교신저자 : 지봉구, e-mail : tourxpert@khu.ac.kr

I. 서론

관광이란 관광객이 관광지를 방문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이다[1]. 여러 현상이란 경제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현상 등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호적인 관광현상 속에서 관광객은 만족을 얻고, 지역주민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 관광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Sheldon과 Var[2]의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조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태도에 따라 관광객 만족이나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3].

이와 같이 관광개발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에 따라 관광개발자 측면에서는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런 경향에 따라 선행연구들에서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다.

지역주민의 성별, 출생지역, 거주지역, 직업의 관광산업 관련성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 지각차이, 관광객 접촉정도, 관광시설 개발 인식정도,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 인식과 같은 관광인식의 정도, 그리고, 관광개발 진행단계 인식수준에 따라 관광영향에 대한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4].

기존의 선행연구 대부분은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를 얻고자 하는 측면에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관광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관광관련성, 관광영향 지각, 그리고, 태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광지 주민의 관광산업과의 관련성과 관광개발 인식정도에 관광영향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를 분석하고, 또한, 관광영향 지각이 지역주민의 관광정책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목표를 설정하

고자 한다.

첫째, 관광영향 지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관광영향의 세부적인 영향요인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준거로 삼는다. 둘째, 기존의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광영향 지각척도를 원용하여 관광영향 지각 정도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측정한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관광영향 지각에 대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그 특성을 파악하여,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 영향요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 [5-7], 지리적 특성[8], 관광산업관련 정도[4][5][9], 그리고, 지역관광에 대한 인식정도[5][8-10]에 따라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에 차이를 보이는가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4].

1) 관광산업 관련 정도와 관광영향

설문응답자의 관광산업과 연관성 정도에 따라 관광영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고동완[5], 김의근[9], 그리고 지봉구[4]의 연구가 있다.

고동완[5]과 김의근[9]의 연구는 관광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표본이 선정되었으며, 지봉구[4]의 연구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표본이 선정되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관광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지역주민들이 관광의 긍정적 영향요인에 대해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상황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관광개발에 대한 관광영향 인식에 대하여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고,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은 차이가 없는 결과가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연구하기로 한다.

2) 관광개발인식 정도와 관광영향

Allen 등[10]은 관광개발 수준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즉, 관광개발 수준이 높은 농촌지역과 낮은 농촌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경제활동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개발 여부에 따라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김의근[9]은 크게 관광개발 정책요인과 관광산업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관광개발정책요인은 개발예정 지역보다 기존의 관광단지가 조성된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특성별 관광영향 지각 차이를 분석한 조배희 외 2[8]의 연구는 관광인식특성을 '관광산업 관련 인식', '관광의 중요성 인식', '관광객과의 접촉수준', '개인의 경제적 이익', '관광시설개발 인식', '환경보전 인식', 그리고 '관광개발단계 인식'으로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지역문화발전 요인'과 '지역경제발전 요인'의 긍정적 영향요인은 '관광개발단계 인식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문화 훼손' 요인과 '지역환경 훼손' 요인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은 관광인식 특성 변수들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관광지를 개발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관광대상으로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인 지역축제가 지역주민의 관광산업관련 정도에 따라 일반적인 관광개발의 관광영향 지각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가를 파악하기로 한다.

3. 관광영향 지각

관광영향이란 인간의 관광활동 뿐만 아니라 관광개발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로 정의되며, 관광영향의 정도와 유형은 관광활동과 개발의 성격, 관광지의 수용태도, 정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12]. 조명환·양봉석도 경제적, 사회, 문화적,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서로 중복되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분류

하여 측정하였다[13].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서 관광에 대한 영향을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변수를 중심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이용한 관광영향측정척도를 바탕으로 경제적 영향중 6개의 긍정적 항목, 사회/문화적 영향중 6개의 긍정적 항목, 그리고, 환경적 영향중 3개의 부정적 항목을 도출하였다.

4. 관광영향 지각의 결과변수

많은 연구자들이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태도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지원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5]. 고동원[5]은 일반적인 관광개발의 영향 지각에 따른 관계를 설명하였고, 노운구[3]은 지역축제의 영향 지각에 따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조명환·양봉석은 문화관광지 개발을 위한 지역주민의 지원의사를 측정하였다[13].

그러나,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추가적인 관광개발에 한정되었다. 기존의 관광개발은 유형의 관광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지역축제의 경우는 계속적인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축제의 영향 지각정도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주민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영향 지각에 따라 관광정책 참여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실증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III. 연구설계

1. 연구모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연구모형은 관광개발과 지역축제에 대한 관광영향 지각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기본적인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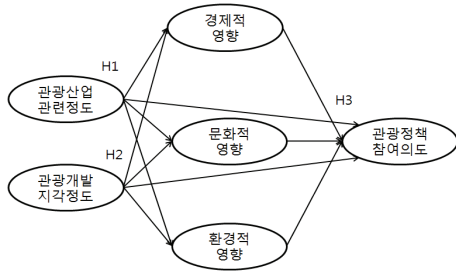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2) 가설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지역주민이 관광산업 관련정도에 따라 관광영향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와 관광개발 지각정도에 관광영향 각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정도는 관광영향 지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1 :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정도는 경제적 영향지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정도는 사회문화적 영향지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3 :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정도는 환경적 영향지각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4 :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정도는 관광정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인식정도는 관광영향 지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1 :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인식정도는 경제적 영향지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각정도는 사회문화적 영향지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각정도는 환경적 영향지각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4 : 지역주민의 관광개발 지각정도는 관광정책 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 관광영향 지각은 주민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 : 경제적 영향 지각은 지역주민의 정책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 사회문화적 영향 지각은 지역주민의 정책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 환경적 영향 지각은 지역주민의 정책참여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측정항목 개발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는 관광영향의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영향지각 항목들을 원용하여 지역축제의 영향에 대한 변수를 추출하였다. 즉, 지역축제의 경제적 영향(6문항), 사회문화적 영향(6문항), 환경적 영향(3문항)으로 대별하여 영향변수를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관광산업관련성(3문항)과 주민정책 참여의도(3문항)를 측정하기 위한 항목으로 6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측정척도(measurement scale)는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럴 것이다’, ‘매우 그럴 것이다’의 1점에서 5점의 범주 안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역축제의 영향변수의 선행변수는 관광산업관련정도와 관광 척도는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그리고, 환경적 영향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구성으로는 김선희[14], 용환재[15], 김의근[9], 최승묵·김남조[16], 지봉구[4]가 이용한 척도를 지역축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였다.

지역축제의 영향 척도는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그리고, 환경적 영향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구성으로는 김선희[14], 용환재[15], 김의근[9], 최승묵·김남조[16], 지봉구[4]가 이용한 척도를 지역축제 상황에 맞게 조정하였다. 첫째, 지역축제의 경제적 영향 척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가할 것이다’,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인삼판매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과 경제교류 효과가 있을 것이다’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지역축제의 사회문화적 영향 척도는 ‘지역주민의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 사회문화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통문화 및 문화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증평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것이다’,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과 인삼관련 학습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다’의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지역축제의 환경적 영향 척도는 ‘축제 주 주변 자연환경 훼손될 것이다’, ‘각종 환경오염이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교통의 혼잡도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시킨다’의 총 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는데, 예비조사는 2007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설문구성상의 문제와 현실성 없는 항목, 연구흐름상 알맞지 않는 것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때 발생된 문제점은 설문지의 구성 및 용어상의 문제로 밝혀졌고, 이를 보완하여 본 조사를 2008년 1월 22일부터 2월 20일(30일간)에 걸쳐 재래시장이 열리는 시기에 8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증평인삼문화제가 개최되는 증평군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증평인삼문화제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였다. 지역주민은 재래시장을 방문한 방문객과 시장상인들을 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의 추출은 예산 및 조사기간의 한계를 고려하여 시간과 조사의 편리성이 강조되는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280부가 회수되어 응답이 미흡한 20부를 제외한 260부를 유효표본으로 확보하였다.

이 연구에서 통계적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통계적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고, 지역축제에 대한 영향지각을 타당성 있게 측정하기 위하여 총 15개 변수를 대상으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축제에 대한 영향지각이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경도와 관광인식경도, 관광

영향지각 요인, 그리고, 주민참여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Amos(18.0)를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직업, 월평균소득, 최종학력으로 나누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첫째, 표본응답자의 성별에 있어서는 총 응답자 260명 중 남성이 165명으로 63.5%이고, 여성이 95명으로 36.5%를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20대 이하’가 87명으로 34.4%, ‘30대’가 83명으로 32.8%, ‘40대’가 45명으로 17.8%, ‘50대’가 32명으로 12.6%, 그리고, ‘60대 이상’이 6명으로 2.4%를 차지하였다.

표 2. 인구 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
성별	남자	165	63.5
	여자	95	36.5
연령	20대 이하	87	34.4
	30 대	83	31.9
	40 대	45	17.3
	50 대	32	12.6
	60대 이상	6	2.4
학력	고졸이하	77	29.6
	대학원 재학이상	25	10.0
가계소득	100만원미만	30	12.9
	100만원~200만원 미만	67	28.8
	200만원~300만원 미만	92	39.5
	300만원~400만원 미만	33	12.7
	400만원이상	11	4.7
합계		260	100.0

주) 결측값은 제외하고 계산함.

둘째, 월 평균 소득에 있어서는 ‘100만원 미만’이 30명으로 12.9%, ‘100만원~200만원미만’이 67명으로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만원~300만원 미만’은 92명으로 35.4%, ‘300만원~400만원 미만’은 33명으로 14.2%, 그리고, ‘400만원 이상’은 11명으로 4.2%를 차지하였다.

셋째, 학력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졸업이 30.9%를 차지하는 77명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졸업은 147명으로 56.5%, 대학원 이상은 25명으로 10.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관광영향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명	변수명	요인 적재량 a	아이겐 값 b	분산 설명력	α
사회 문화 영향 (3.56)	증평의 이미지 개선효과	.790	3.432	22.881	.782
	전통문화 및 문화재 개발 기여	.699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보	.692			
	문화 환경 개선	.650			
	주민 여가활동 기여	.625			
	인삼관련 학술교류 활성화	.609			
환경 영향 (2.82)	환경오염 심화	.918	3.211	21.405	.883
	자연환경 훼손	.891			
	주민생활 불편	.832			
경제 영향 (3.56)	고용증대 효과	.805	2.705	18.031	.751
	주민소득 증대	.803			
	관광산업 발전	.701			
	인삼판매 증가	.646			
	지역경제 활성화	.641			
	외국과 경제교류	.432			

총분산설명력: 62.317%, KMO=.854, Bartlett 구형성 검정 $\chi^2=1974.464(p<0.001)$

2. 측정변수의 적합성 검증

지역주민의 지역축제에 대한 영향지각 측정척도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하여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 요인분석에서 공통성 추출(communalities extraction)을 통해서 각 변수의 주성분 분석에 의한 공통성을 확인하였다.

공통성은 추출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 비율을 나타내며 공통성이 0.4이하인 변수가 없어 총 15개의 변수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개의 요인이 추

출되었는데, 추출된 요인은 총 분산의 약 62.3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KMO(Kaiser-Meyer-Olkin)값은 .854를 나타내고 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χ^2 가 1974.464(df=105, Sig=.000)로 유의한 값을 보이고 있어 요인분석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고 추출된 요인은 직각(Varimax) 회전법을 시행하여 요인해석을 단순화하고자 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3개의 요인은 그 구성변수를 검토하여, 각각 '경제적 영향(3.57)', '사회문화적 영향(3.55)', '환경적 영향(2.82)'로 명명하였다. 지역주민의 축제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높게 인식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정모형 분석의 대표적인 확인요인분석(CFA)을 통하여 다시 요인의 개념타당성을 확보하기로 한다. 측정모형 분석에는 최대우도법(ML)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평가는 적합도 지수들을 이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를 정리해 보면 [표 4]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AGFI값이 기준(0.90이상)에 미흡하지만, 다른 적합도 지수(RMR, RMSEA, GFI, NFI, CFI)는 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모형의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표 5] 참조). 본 연구에 사용된 평균값은 측정오차를 줄여 단일 차원으로 구성개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총합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성개념들 간에 상관관계가 너무 커서 1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판별타당성도 충족되었다[17]. 결과를 종합한 결과,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구성

표 4. 각 요인별 확인요인분석 결과

요인	초기항목	최종항목	X2	df	p	RMR	RMSEA	GFI	AGFI	NFI	CFI
경제적 영향	6	4*	7.445	1	.006	.011	.159	.986	.859	.983	.985
사회문화적 영향	6	4**	14.341	2	.001	.021	.155	.971	.855	.954	.960
환경적 영향	3	3	-	-	-	0	.772	1	-	1	1

* 경제적 영향에서 제외된 변수는 '인삼판매증가' 와 '외국의 경제교류' 변수이다.

** 사회문화적 영향에서 제외된 변수는 '주민여가활동 기여' 와 '인삼관련 학술 교류 활성화' 변수이다.

표 5.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관계행렬

	관광산업 관련정도	관광개발 지각정도	환경적 영향	경제적 영향	사회적 영향	관광정책 참여의도	Mean	SD
관광산업 관련정도	1						3.0039	.75291
관광개발 지각정도	.617(**)	1					2.8620	.81439
환경적 영향	.242(**)	.337(**)	1				2.8333	.77206
경제적 영향	.436(**)	.411(**)	.247(**)	1			3.5632	.59576
사회적 영향	.437(**)	.407(**)	.183(**)	.683(**)	1		3.5632	.54456
관광정책 참여의도	.436(**)	.469(**)	.209(**)	.343(**)	.403(**)	1	3.0473	.73286

주) ** :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개념들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분석결과(인과분석)

구성개념들간의 인과관계의 형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경로모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mos 18.0을 사용하였다. Amos를 이용한 구조모형의 분석결과,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X2에 대한 p값, GFI, AGFI, CFI, RMR, RMSEA 등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X2에 대한 p값=0.141, GFI=0.995, AGFI=0.903, CFI=0.996, RMR=0.010, RMSEA=0.061로 적합도 지수들은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를 포함한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으며, 가설검정 결과를 나타내면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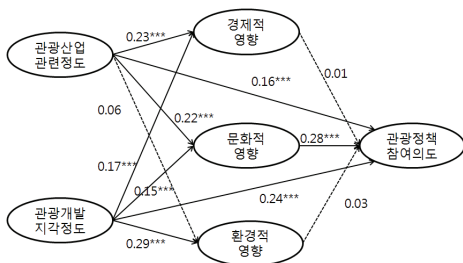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과 경로계수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정도는 지역축제 영향지각 중에서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적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순서는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이 거의 동일하며, 관광정책 참여의도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는

축제의 개최기간이 단기간이기 때문에 환경적 영향의 부정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수준에 대한 지각정도는 지역축제 영향지각 각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영향력의 크기는 환경적 영향이 가장 크고, 관광정책 참여의도, 사회문화적 영향, 경제적 영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검정 결과

가설	경로	가설 방향	경로 계수	C.R. (t값)	p값	채택 여부
가설 1-1	관광산업관련→경제적 영향	+	0.23	4.20	0.000	채택
가설 1-2	관광산업관련→문화적 영향	+	0.22	4.27	0.000	채택
가설 1-3	관광산업관련→환경적 영향	+	0.06	0.72	0.47	기각
가설 1-4	관광산업관련→정책참여의도	+	0.16	2.41	0.016	채택
가설 2-1	관광개발 정도→경제적 영향	+	0.17	3.27	0.001	채택
가설 2-2	관광개발 정도→문화적 영향	+	0.15	3.16	0.002	채택
가설 2-3	관광개발 정도→환경적 영향	+	0.29	4.06	0.000	채택
가설 2-4	관광개발정도→정책참여의도	+	0.24	3.73	0.000	채택
가설 3-1	경제적 영향→정책참여의도	+	0.01	0.11	0.915	기각
가설 3-2	문화적 영향→정책참여의도	+	0.28	2.84	0.005	채택
가설 3-3	환경적 영향→정책참여의도	+	0.03	0.68	0.494	기각

지역주민의 축제영향지각요인이 관광정책 참여의도 간의 관계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관광정책 참여의도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은 관광산업 관련 정도와 환경적 영향과의 관계, 경제적 영향과 관광정책 참여의도와와의 관계, 그리고, 환경적 영향과 관광정책 참여의도의 관계의 가설을 제외한 나머지 가설들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V. 결론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전의 중앙집권적 관광개발 형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관광개발이 진행되면서 관광개발 대상지역 내부에서는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이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관광개발지역의 지역주민들이 관광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에 따라 관광개발자나 관광개발 허가주체의 사업성공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과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어 왔다.

지역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관광개발 인식수준 등에 따라 관광영향에 대한 차이와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갖는 지역주민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관광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관광 인식정도, 관광영향 지각, 그리고, 태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요인분석 결과 추출된 3개의 요인은 그 구성변수를 검토하여, 각각 '경제적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 '환경적 영향'으로 명명하였다. 측정모형 분석의 대표적인 확인요인분석을 통하여 요인의 개념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측정모형 분석에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였으며, 모형의 평가는 적합도 지수들을 이용하였다. 구성개념들 간의 인과관계의 형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경로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적합도 지수들은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역주민의 관광산업 관련정도는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이 거의 동일하며, 관광정책 참여의도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관광산업 연관성이 높은 지역주민들 일수록 경제적 영향과 사회문화적 영향, 특히, 긍정적 영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광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지역주민들을 대

상으로 한 친환경적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당장의 이득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청정한 환경을 갖춘 지역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관광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수준에 대한 지각정도는 관광영향지각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의 크기도 환경적 영향이 가장 크고, 관광정책 참여의도, 사회문화적 영향, 경제적 영향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개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지역주민들은 관광영향의 부정적 요인인, 환경적 영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개발의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지역주민들이 관광영향의 부정적 영향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관광의 양상을 제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요인이 관광정책 참여의도 간의 관계는 사회문화적 요인만이 관광정책 참여의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관광영향 중에서 문화적 영향을 높게 인식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축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향후 지역축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화단체의 협력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관광영향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Hardware 관광개발의 관광영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의 영향 지각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박호표, *신관광학의 이해*, 서울, 학현사, 2004.
- [2] P. J. Sheldon and T. Var, Resident attitude to tourism in North Wales, *Tourism Management*, 5, pp.40-47, 1984.

[3] 노윤구, "축제에 대한 지역사회 애착도가 주민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도 소싸움 축제지역," 대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4] 지봉구, "지자체 공무원의 지역관광인식 수준별 관광영향지각 차이분석," 관광연구, Vol.22, No.1, pp.307-324, 2007.

[5] 고동완, "인구통계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 인식의 차이," 관광학연구, Vol.25, No.3, pp.63-80, 2001.

[6] 홍수희, "정동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 관광레저연구, Vol.15, No.2, pp.173-191, 2003.

[7] 오정학, 윤유식, "지역애착심과 관광개발선호, 평가, 만족, 인구학적 특성과 관광개발지지, 효과인식의 영향관계: 강원도지역 사례," 관광연구, Vol.24, No.5, pp.275-295, 2009.

[8] 조배행, 최영희, 김동희,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지각 차이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11, No.5, pp.426-439, 2005.

[9] 김의근,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중문관광단지과 성산포관광단지를 중심으로-, " 의식경영연구, Vol.7, No.1, pp.123-138, 2004.

[10] L. R. Allen, H. R. Hafer, R. Long, and R. R. Perdue, "Rural residents' attitudes toward recreation and 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1 No.4 pp.27-33, 1993.

[11] S. V. Lanford and D. R. Howard, "Developing a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1, pp.121-139, 1994.

[12] 고동완, "지역주민의 지각된 관광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13] 조명환, 양봉석, "문화관광지 개발에 대한 김해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지각, 관광태도, 관광지원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Vol.16, No.2, pp.9-27, 2004.

[14] 김선희,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 인지도 분석, 지리학 연구," Vol.32, No.1, pp.87-100, 1998.

[15] 용환재, "대진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20, pp.145-173, 2004.

[16] 최승목, 김남조, "관광개발에 대한 관광담당 공무원의 태도," 관광학연구, Vol.29, No.1, pp.209-227, 2005.

[17] 강병서,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무역경영사, 2002.

저 자 소 개

지 봉 구(Bong-Gu Jee)

중신회원



- 1994년 2월 : 청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사)
- 1997년 2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2년 8월 :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관광학박사)
- 2010년 2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연구교수
<관심분야> : 관광정보, 관광정책, TGIS, CRS/GDS, 문화관광콘텐츠

이 계 희(Gye-Hee Lee)

정회원



- 1992년 5월 :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호텔경영학석사)
- 2001년 12월 : Perdue University(관광경영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관심분야> : 관광지마케팅, 소비자 행동론